

저개발국에 병원 25개 건립...장흥 출신 조기성 전 아르헨티나 대사 별세

38년 외교관 생활...2004년 평화의료재단 설립

"1958년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을지로6가에 들어선 메디컬센터(지금의 국립의료원)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스칸디나비아(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나라들의 지원으로 세워진 메디컬센터는 군대 막사 식으로 지어진 단순한 건물이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 거리에서 메디컬센터는 하나의 경이였다. 젊은이는 생각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시설을 세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

만 22살 때 받은 충격을 잊지 않고 1993년 페루를 시작으로 2020년 시에라리온까지 세계 곳곳에 병원 25개를 설립한 조기성(崔基成) 전 아르헨티나 대사가 5일 새벽 1시10분경 경기도 하남시 강동스마일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7일 전했다. 향년 만 86세.

장흥에서 태어난 고인은 장흥고, 한국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한 뒤 과테말라 산카를로스대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961년 외무부에 들어가 1988년 과테말라-온두라스 대사, 1992년 페루 대사, 1994년 아르헨티나 대사를 역임했고 1999년 은퇴했다. 38년 외교관 생활 내내 '라틴아메리카론'으로 활약했다.

정부가 5·16 쿠데타 직후 외교 관계가 없던 중남미 10여 개국과 한겨레에 수교를 추진하면서 중남미 유학 경력이 있고, 스페인어에 능통한 고인의



활약이 돋보였다. 과테말라 대사 재임 중 미국 정부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카리브 개발계획'을 추진하자 한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 6개에 불과하던 한국 봉제공장을 120개로 늘렸다.

1992년 페루 대사로 갔을 때 병원 건립을 건의, 1993년 시골 마을 카야오(Callao)에 페루-한국 의료센터 설립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 세운 최초의 병원이었다.

2004년 뜻을 같이하는 이들을 모아 평화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저개발국 무의촌(無醫村)에 병원을 짓기 시작했다.

한편 유족으로 부인 이진희씨와 사이에 1남1녀(조혜란 미국 데이비스대 교수·조무강 모닝캡 매니지먼트 대표) 등이 있다.

/연합뉴스

광주대, 부동산학 광주·전남 1호 김동기 박사 특임교수 임명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은 지난 3일 학교 크기 관에서 부동산학 광주·전남 1호 박사인 김동기(오른쪽) 박사를 특임교수로 임명했다.

김 총장은 "김동기 박사는 연구, 학업, 사업 등에서 존경받을 퍼포먼스로 재학생과 광주대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광주대의 자랑이다"고 특임교수 임명 이유를 밝혔다.

김동기 교수는 "실력과 열정이 담긴 강의,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산학협력 활동으로 자랑스러운

모교의 부름에 보답하겠다"면서 "특임교수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받자국을 남겨 더 많은 특임교수 배출과 대학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김 교수는 대학발전기금 3000만원을 김 총장에게 전달했다. 김동기 교수는 현재 하이누리그룹 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 등을 맡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화순군과 다문화 가족·취약계층 대학 진학 지원 협약

동강대는 최근 화순군청 회의실에서 '다문화 가족·취약계층 대학진학 및 취업지원'을 위한 상호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이민숙(오른쪽) 총장과 구복규 화순군수가 참석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동강대는 우리 사회 다문화 학생 비중이 커짐에 따라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사회 적응과 학업 등을 도우며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화순군과 협약식에 앞서 지난해 12월 광산구 가족센터에 이어 올 1월 서구가족센터와 각각 협약을 맺었다.

특히 이민숙 총장은 전기용품과 학습 교구 등을 직접 마련해 후원했다.

또 동강대는 입시 설명회를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게 다양한 진학 기회를 제공했다.

동강대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등록금 무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교육부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미래지능형 모빌리티과, 미래친환경에너지과, 호텔조리관광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계약학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숙련인력학습병행 P-TECH(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 등을 소개했다.

동강대 이민숙 총장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대학과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며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출신으로 구성된 다문화 팀을 전국 최초로 임용해 운영하는 화순군과 손을 잡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 동력으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aT, 부사장 및 상임이사 임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3일 상임이사 인사를 단행하고 6일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부사장 겸 기획이사에는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를, 신임 수출식품이사에는 권오엽 전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을 임명했다.

기노선 신임 부사장 겸 기획이사에는 1990년 공사 입사 이래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21년 12월부터 수출식품이사를 역임해왔다.

권오엽 신임 수출식품이사는 1991년 공사에 입사해 유통동성부장, 서울경기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동천마을6단지 관리사무소, 한결마취통증의학과와 협약



광주시 서구 동천마을 6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소장 최상재)는 최근 한결마취통증의학과와 MOU협약을 체결하고, 한결마취통증의학과에서 기부한 사랑의 쌀(200포)을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제공>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해 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이슈 픽 쌤과 함께(재)	00 오아시스(재)	15 꾸러기 식자교실(재) 45 프린세스 바리(재)	00 애니갤러리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5 배틀트립 2(재)	00 12 MBC 뉴스 25 꼭두의 계절(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재)
1	00 이웃집 찰스(재) 50 2023 월드컵이벤트 클래식 특집 더 캠프(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10 열린채널 50 어린이 동물티비			00 뉴스브리핑
3	20 팔도밥상(재)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살 문계공방 3(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시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 2(재)	55 5 MBC 뉴스	00 와이드 정보쇼 알고 보면 45 SBS 오뉴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내 친구 반인반어 15 소스리아 -사라진 레시피카드를 찾아서 30 꿀팁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이 맛에 산다(재) 25 마녀의 게임(재)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고지식 만담회	40 2023 월드컵이벤트 클래식 특집 더 캠프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테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세계 여성의 날 특선영화 <한창이아 선녀님>	00 일타강사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30 라디오스타	40 순정파이터
11	30 KBS 뉴스라인	20 9층 시사극		
12	10 시사기획 창(재)	05 월드컵이벤트 클래식 특집 <코리아 베이스볼 랩소디>	10 헛바퀴 종합격투기 세치허 스페셜	20 나이트라인 50 최강 1교시(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히어로 씨름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뽕뽕뽕 뽕뽕뽕
07:00 뽕뽕뽕 뽕뽕뽕	12:00 EBS 뉴스 12	18:30 번개강도의 비밀 스페셜
07:15 하프와 친구들	12:10 극한직업	19:00 순간 포착, 아성
07:45 엄마 까투리	13:0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9:30 한국의 둘레길
08:00 똥덩어리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19:50 건축탐구-집
08:20 미니특공대 비아레인저스	14:45 한국의 둘레길	20:40 세계테마기행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35 꾸러기 천사들	<모락모락, 집밥 기행 3부 피아골 부부의 따뜻한 집밥>
09:05 최고! 호기심딱지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시몽	16:15 페퍼 피그	22:45 인간과 바다
09:35 타타와 쿠마	16:2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6:40 똥덩어리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8일(음 2월 17일 乙丑)

<p>36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맹해를 필요가 있다. 48년생 행보에 따른 변수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 60년생 애매한 입장에서 취한 판단들은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72년생 자신 있게 진행한다면 양호한 결과를 얻으리라. 84년생 예기치 못한 격정거리가 생기겠다. 96년생 과감하게 버려야 일목요연해지느니라.</p> <p>행운의 숫자 : 40, 91</p>	<p>42년생 진부함을 벗어나려는 과격이 요청된다. 54년생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니 미리 알고 대비함이 현명하다. 66년생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78년생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경사가 보인다. 90년생 기억에 영원히 각인될 수 있는 일이 생기리라. 02년생 어중간한 판국에 놓인다.</p> <p>행운의 숫자 : 18, 97</p>
<p>37년생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고 있으면 되느니라. 49년생 갖추어질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이 옳다. 61년생 선점하지 못한다면 불리하다. 73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일정대로 처리하면 무난하리라. 85년생 마음먹은 대로 임의적으로 행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97년생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다.</p> <p>행운의 숫자 : 41, 83</p>	<p>43년생 대동소이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55년생 현재의 형세에 얽매었다면 대국을 살릴 수 없느니라. 67년생 초심대로라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다. 79년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없이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다. 91년생 현실 상황에 따르는 것이 도리이다. 03년생 비관적 지지를 하게 되는 판국에 이르른다.</p> <p>행운의 숫자 : 49, 84</p>
<p>38년생 가려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모순점을 낳는다. 50년생 자신이 쏟아부은 노력과 대비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62년생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의 관점이다. 74년생 초여름의 소나기와 같은 기복이 보인다. 86년생 무의식중에 쉽게 속을 수도 있는 날이다. 98년생 행운의 그림자가 비친다.</p> <p>행운의 숫자 : 19, 69</p>	<p>44년생 주된 골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56년생 책무를 다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다. 68년생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하고도 남음이 있다. 80년생 다시 한번 점검해 볼때다 새로운 면모가 드러날 것이다. 92년생 여러 번의 기회들이 지나갈 것이니 잘 살펴봐야겠다. 04년생 완벽하지 않다면 불리하다.</p> <p>행운의 숫자 : 10, 99</p>
<p>39년생 석연치 않다면 과감히 선회하는 것이 유익하다. 51년생 실행하더라도 정밀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 63년생 노출되어 있는 것만으로 응대해서는 아니 된다. 75년생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계도 되겠다. 87년생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99년생 융통이 쉬워지면서 성사된다.</p> <p>행운의 숫자 : 23, 59</p>	<p>45년생 이익의 급격한 증가가 보이는 시기이다. 57년생 기본적인 사실이 입각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69년생 많이 늘어났지만 이전 아무것도 아니다. 81년생 일상을 내려놓고 파안대소할 일이 있겠다. 93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버리는 것이 옳다. 05년생 낫은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p> <p>행운의 숫자 : 39, 80</p>
<p>40년생 구태연함에서 사로잡힌다면 진일보하기도 어려워진다. 52년생 얼마나 오래 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이다. 64년생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76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에 확실히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88년생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는 것이 유익하다. 00년생 상황 윤리에 따라라.</p> <p>행운의 숫자 : 48, 57</p>	<p>34년생 바람직한 여건이니 적극적으로 수용해도 된다. 46년생 대양은 비에 젖지 않는 법이다. 58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 발생하여 시간을 빼앗긴다. 70년생 투철한 소명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82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다. 94년생 망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겠다.</p> <p>행운의 숫자 : 24, 64</p>
<p>41년생 급한 상황이 되면서 모순점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지리라. 53년생 반복적인 확인 작업이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만 놓치지 않는다. 65년생 핵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77년생 타산지식의 격이므로 남의 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다. 89년생 오랜한다면 반드시 손재수가 따른다. 01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라.</p> <p>행운의 숫자 : 11, 53</p>	<p>35년생 지나친 기교가 오히려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도 있다. 47년생 뒤처진다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59년생 정세의 변화가 급격하여 결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71년생 힘들면 쉬었다 하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83년생 장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95년생 뻔히 알면서도 빠져드는 안타까움이 있다.</p> <p>행운의 숫자 : 12, 72</p>